

<單位>와 <一地鷄毛>의 ‘小林’을 중심으로 본 신사실주의 소설의 인물형상과 일상성의 긍정

강 효 숙*

<目次>

- | | |
|--------------|----------------------|
| I. 들어가는 글 | III. 반복되는 일상 속 의미 찾기 |
| II. 일상 들여다보기 | IV. 나오는 글 |

I. 들어가는 글

1980년대 중후반, 중국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문학 역시 다면화되기 시작했다. 소설 방면에서는 尋根소설과 실험소설이라 일컬어지는 先鋒소설, 그리고 新寫實주의 소설이 등장하여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신사실주의 소설로 명명되는 새로운 경향은 선봉소설과 함께 1980년대 중기에 나타났다. 이른바 신사실주의 소설이라는 개념은 1988년 江蘇省 無錫에서 개최된 ‘소설 창작 방법에 관한 회의’에서 최초로 거론되었는데, 당시 주제는 ‘현실주의와 현대주의의 소설 형식이 중국에서 발전가능한가?’였다. 이 주제는 南京에서 출간된 문예지인 《鐘山》에서 <新寫實小說 大聯展>이라는 제목 하에 작품과 이론이 연재되면서 재론되었으며, 이후 중국 문단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¹⁾ 신사실주의 소설은 전통적인 리얼리즘, 그리고 모더니즘과 비교되는데, 이는 신사실주의가 이 두 유파의 장점

* 영남이공대학교 외래교수

1) 李潔非, <十年煙雲過眼>, 《當代作家評論》 1993年 第1期, 31쪽.

을 일정 부분 취했기 때문이다. 傷痕과 反思문학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신 시기 문학은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인물의 전형화나 서사 기법은 이전의 리얼리즘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전통적 리얼리즘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한 심근문학이나 선봉문학 역시 지나치게 실험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현실의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사실주의는 전통적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파로, 이전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창작방식과는 달리, 정치적인 색채와 감정을 배제한 이른바 ‘零度の 글쓰기’²⁾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작가의 주관을 숨기고 소설 속 서술자의 역할을 축소시킴으로서 서술자는 하나의 ‘방관자’의 역할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사실주의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은 모두 단조롭고 가난한 생활에 찌들려 있으며, 개인의 생활들은 껍질하고 담담하게 문장 속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전의 리얼리즘이 추구하는 문학과는 달리 신사실주의 작가들은 사회나 생활 속에서 겪는 개인의 문제를 늘어놓고 묘사할 뿐, 그 자체에 대해 비판이나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신사실주의 소설에서는 개인의 자잘한 번민들과 사회 이면의 추악함이 적나라하게 펼쳐졌고, 가정과 사회는 더 이상 개인에게 따스함을 제공하고 이상을 꿈꾸게 하는 장소가 아님을 인식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陳思和는 당대 중국사회의 현실적 한계에 의한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는 1989년 여름 베이징에서 발생한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은 5.4 신문학운동 이래 형성된 엘리트 의식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였고, 이와 함께 현실 전투정신 역시 점차 약

2) 零度の 글쓰기란 Roland Barthes가 말한 문학개념으로 Barthes는 이를 ‘직설법적인 글쓰기’, ‘비정서적인 글쓰기’, ‘중립적인 새로운 글쓰기’, ‘냉정한 글쓰기’, ‘백색의 글쓰기’라 부르고 있다. 이 글쓰기에서는 사용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신화적이나 사회적 특징들은 어떠한 중립적인 상태를 위해 유보되거나 폐기된다. 長業松은 ‘신사실 소설은 작가의 감정 이입을 배제하고, 일종의 零度の 감정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롤랑바르트, 김용권 역, 《글쓰기의 영도》, 東文選, 2007 참고. 張業松, <新寫實: 回到文學自身>, 《上海文學》 12卷, 1993 참고.

화되는 경향 속에 신사실주의 소설은 뚜렷한 현실 도피적 경향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³⁾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에 도시개혁이 시작되고 1980년대 말 중국은 경제의 정세현상과 물가폭등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아드릴 준비가 되지 않은 사회 구성원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현대화의 구호 아래 중국 사회의 급속한 자본주의적 변화는 개인들을 배금주의에 몰들게 했으며, 빈부격차와 사회의 각종 부패가 만연하게끔 했다. 이러한 특수한 80년대의 시대적 배경하에 탄생한 劉震雲의 소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은 <一地鷄毛>일 것이다. 1991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앞서 1988년 발표된 단편소설 <單位>의 등장인물인 小林의 일상생활을 다루고 있다. <單位>에서 주인공인 小林은 막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 한 신입사원으로 예전의 철없던 자신을 잊고 공산당 입당을 위해 동분서주한다. 小林의 살아남고자 하는 발버둥은 가정으로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다룬 것이 바로 <一地鷄毛>이다. <一地鷄毛>에서 小林과 그의 아내는 한 때 자신만만했던 학생 시절의 이상을 뒤로한 채, 두부 한모와 김장 배추 구입에 열을 올리며 용숙한 생활에 귀속되고야 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一地鷄毛>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중국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傳統人格理想的消隱與重建—論劉震雲小說中的當代知識分子形象>에서 苗禕는 小林을 이른바 '反성장형' 지식청년의 형상이라 규정지으며, 이러한 小林의 묘사가 매너리즘에 빠진 당대의 지식인들을 향한 반성과 각성의 효과를 가져 오리라는 작가의 의지가 담겨있다 평했다.⁴⁾ 또한 嚴運桂는 2009년 발표한 그의 평론에서 중국 현대 지식인들을 세 부류⁵⁾로 나

3) “尤其是在1989年夏北京發生政治風波以後，許多知識分子引起了對，“五四”新文化運動以來逐漸形成的知識分子精英意識的反省和放棄，新文化傳統中一向明確有力的現實戰鬥精神也就在這個過程中逐漸弱化了。” 陳思和，〈中國當代文學史教程〉，復旦大學出版社，1999，309쪽.

4) 苗禕，〈傳統人格理想的消隱與重建—論劉震雲小說中的當代知識分子形象〉，〈河南師範大學學報〉34卷4期，2007，147쪽.

5) 嚴運桂는 중국의 현·당대 지식인들을 모두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는

누면서 <一地鷄毛>의 小林을 ‘아Q정신’의 변모를 가진 인물이라 평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小林이라는 인물에 대해 퇴락한 지식인, 권력에 무릎 꿇은 지식인이라 평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소설의 원작자인 劉震雲은 오히려 <一地鷄毛>은 ‘한 줄기 빛’이라 불러도 무방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⁶⁾ 그는 사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일반 소시민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라는 측면에서 작품을 썼다는 것이다. 이렇듯 <一地鷄毛>속 小林에 대해 지식인의 이상을 잃어버린 채 일상생활의 용속함에 빠져버린 인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지리멸렬한 일상생활 속 한줄기 빛을 찾아 떠나는 모험가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다.

첫 번째 부류를 5.4 신문화운동 시기 반전통적 의식을 가지고 투쟁한 유형, 두 번째 부류는 문혁시기 사회적 압박 속에 입을 닫고 아무런 반항을 못했던 유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를 개혁개방 후,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확실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6) 劉震雲은 한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자신의 의견을 말한 바 있다. “<一地鷄毛>나, <單位>의 작품은 인간에 대한 풍자나 무관심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一地鷄毛>를 창작 할 시기에는 생활 속 한줄기 빛을 발견했다. <一地鷄毛>는 ‘한줄기 빛’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중략) 보통의 사람들의 생활은 비슷하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재료를 사서 밥을 짓고, 아이를 데리고 오고, 밥을 먹고 또 잠도 잔다. 매일같이 이러한 무미건조한 생활의 반복인 것이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토록 끈질기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것은 의미 있고 생각해 볼만한 질문이다. 우리는 작은 일반 서민일 뿐이다. 커다란 재주도 없고, 중국을 방문한 외국의 수상을 영접하거나 큰일을 위해 데이프를 자를 수도 없다. 후에 나는 시장에서 이 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홍정’이었다. 지금 사람들은 몇 푼의 돈이 땅에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지만 만약 당신이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한 뽕의 땅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여기에 신경을 집중하다 보면 외부의 세계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당신은 가진 돈으로 홍정에 성공하게 되어 집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승리’는 몇 푼돈에 한정된 것도 아니요, 구입한 물건 자체도 아니며, 이 승리는 바로 전 세계에 대한 승리인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몇 푼의 돈이 가지는 의의는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 (중략) 이런 느낌이야말로 바로 생활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一地鷄毛>를 창작한 배경이다. 하지만 모두가 이 작품을 ‘암울하다’라 느끼리라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張英, <劉震雲訪談錄>, 《文學的力量—當代著名作家訪談錄》, 民族出版社, 2001, 232-337쪽.

본고는 '현대적 아Q' 혹은 '反성장적'인물이라 불리는 <一地鷄毛>의 小林의 인물형상을 통해 원작자인 劉震雲이 표현하고자 했던 개인의 삶 속 '한 줄기 빛'을 탐구해 보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다른 신사실주의 소설인 <煩惱人生>, <白渦>, <官人>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은 일상생활의 자잘함 속에 빠져 생활하는 무력한 존재로 형상화 되어있는데, 이러한 인물들의 형상을 통해 용속한 생활 속에 빠져 있는 전형적인 신사실주의 소설의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탐구해 보고자한다. 또한 일상성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본고는 신사실주의의 대표적 텍스트라 할 수 있는 <一地鷄毛>와 <單位>속 小林의 인물형상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小林은 도시의 대표적 소시민으로 이렇다 할 커다란 능력이나 재산이 있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무사히 살아가기만을 바랄 뿐인 보통사람이다. 이러한 小林은 보편적 현대인들의 친구일 수 있고 가족일 수도 있으며,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 때문에 필자는 사회 속 가장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 小林의 인물형상을 통해 일상성의 긍정에 대한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일상 들여다보기

1980년대 등장한 신사실주의 소설에는 일상생활의 자질구레함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복잡한 세상을 채우고 있으며, 작가들은 이들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신사실소설의 대표작 중 하나로 평가받는 <煩惱人生>은 池莉의 대표작으로 이 작품으로 그녀는 1987년 전국우수중편소설상을 수상했다. <煩惱人生>의 작품 속에는 소설의 제목 처럼 자질구레한 일로 점철되어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바로 印家厚이다. 印家厚는 아들 한 명과 아내를 둔 평범한 기술자이다. 그의 아침은 마치 고단한 하루를 예견하는 듯 아내의 비명소리와 아들의 울음소리로 시작된다. 아들과 함께 한 바쁜 출근길과 또 직장에서 그를 괴

롭히는 작은 번뇌들로 그는 녹초가 된 채 집으로 퇴근한다. 소설은 印家厚의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의 상황들을 마치 카메라로 촬영하듯 보여주고 있다.

화장실은 또 만원이었다. 네 개의 변기위에는 이미 퇴직한 노인들 네 명이 쭈그리고 앉아있다. 노인들은 모두 지그시 눈을 감고 느릿느릿 불일을 보고 있다. 印家厚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그때 한 노인이 히히거리며 웃어댔다.

“小印, 더 이상 못 버티겠는가?”

(중략)

망할! 印家厚는 한바탕 욕설이라도 퍼붓고 싶었지만 괜히 이웃들의 미움을 받기 싫었다. 이웃들의 미움을 사는 일은 얼마나 쉬운 일이던가? 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먹을 짝 쥐고 나오자 뒤에서 화장지 비비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만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았다.⁷⁾

印家厚의 목은 마치 돼지의 피와 같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사실 그는 그 돈이 얼마인가 대해서는 계산하고자 하는 생각이 결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내대장부가 5위안에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5위안! 옷다가 이빨이 빠질 일이 아닌가! 그는 화가 나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크게 웃거나 유머스런 말을 던져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은 그리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印家厚의 얼굴만 그저 돼지 피와 같은 붉은 색깔로 물들고 있을 뿐이었다.⁸⁾

7) “廁所又是滿員，四個蹲位蹲了四個退休的老頭。他們都點著煙，合著眼皮悠著。印家厚鼻孔裏呼出的氣一聲比一聲粗。一個老頭嘎嘎笑了：“小印，等不及了？”(中略) 屁! 印家厚極想說這個字可他又不想得罪鄰居，鄰居是好得罪的麼? 印家厚憋得慌，提著雙拳正要出去，後邊響起了草紙揉搓聲，他的腿都軟了。”池莉，《中華中篇小說百年精華》，人民文學出版社，2004，300-301쪽.

8) “印家厚的脖子根升起了紅暈，豬血一般的顏色。其實他並不計較多少錢，但人們以為他——一個大男人被五塊錢打垮了。五塊錢。笑掉人的牙齒。印家厚讓悲憤堵塞了胸口。他思謀著騰地站起來哈哈大笑或說出一句幽默的話，想是這麼想，卻怎麼也做不出這個動作來，豬血的顏色迅速地上升。” 같은 책, 314쪽.

<煩惱人生>속 印家厚는 자신이 처한 이런 '번뇌'상태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지도 않을뿐더러 그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어떠한 거창한 노력이나 결심 역시 하지 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는 그저 그를 향해 시시각각 다가오는 잡다한 번뇌들을 받아들이고 그 번뇌 안에서 맴돌 뿐이다. 퇴직한 노인들로 가득 찬 화장실에서 변의를 참던 印家厚는 노인의 빈정거림을 듣고 순간 화가 치민다. 한편으로는 이웃의 미움을 받아 혹여 또 다른 번뇌가 그를 향해 올까봐 걱정하기도 한다. 결국 그는 주먹을 짝 쥐어 보지만 뒤이어 들려오는 노인의 화장지 비비는 일상적 소리에 그냥 맥이 빠져 화를 삭이고 만다. 한편, 출근한 직장에서 그는 내정되어 있던 1등 장려금을 타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순번제로 장려금을 탔기에 당연히 이번 순서는 그의 차례였다. 하지만 중간의 농간으로 결국 그는 5위안을 받는 3등상을 타고 만다. 印家厚는 그의 목이 마치 돼지의 피처럼 붉게 물들 정도로 화가 났지만, 이른바 '나이 먹은' 남자가 겨우 5위안에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또 화를 꼭 참고야 만다.

그는 얼마 전 전근 온 '문젯거리'의 결혼 축의금으로 2위안을 냈고, 아프리카 가아 성금으로 1위안을 냈다. 또 '판다를 구하자'라는 단체에서 모금하러 오자, 잠시 생각하고는 판다가 눈물 흘리는 그림이 붙어 있는 작은 상자에 2위안을 밀어 넣었다. 성금을 모금하는 공산당 청년단원들은 환호를 하면서, 印家厚야 말로 이 공장에서 국보를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고 추켜세웠다. 사실 공장장도 5전밖에 내지 않았다.⁹⁾

印家厚는 5위안의 장려금을 각종 축의금과 구호금으로 다 써버렸다. 사실 그 5위안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에게 큰돈이었다. 하지만 그는 '5위안을 좋은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3등상의 치욕을 없앴다.'¹⁰⁾ 그에게 있어 이

9) “剛調來的老大難結婚“表示”了兩塊錢；拯救非洲饑民捐款一元；‘救救熊貓’募捐小組募到他的面前，他略一思忖，便往貼著熊貓流淚圖案的小紙箱裏塞了兩元。募捐的共青團員們歡聲雀躍，贊揚印家厚是全廠第一！第一個心疼國寶！就是廠長也只捐了五毛錢。” 같은 책, 332쪽.

러한 행위는 일탈적이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일상과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일탈을 꿈꾼다. 장려금을 내는 행위로 작은 일탈을 꿈꾸었던 그의 일탈적 행위는 3등상의 치욕을 회색시키는 동시에, 3등상 따위에 연연하지 않음을 과시하려는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일탈로 그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했다. 하지만 그의 일탈은 퇴근 후 아내에게 집이 헐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현실에 대한 무력감으로 후회만을 남기게 된다. 이렇듯 印家厚의 일탈은 다시금 딱딱하고 견고한 일상의 틀로 다시금 정형화 되어 버리는 모습을 보인다.

생활의 용속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물은 劉恒의 <白渦>에서도 볼 수 있다. <白渦>의 주인공인 周兆路는 나름 촉망받는 중의사로 출세의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그에게는 귀여운 자식들이 있었고, 현숙한 아내도 있다. 하지만 이런 周兆路의 앞에 같은 연구실 동료인 華乃倩이 나타나며 그의 완벽한 생활에는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에게 유혹을 느끼게 되고 둘은 불륜의 관계 속으로 빠지게 된다. 周兆路은 승진을 앞두고 그녀가 방해되리라 생각하여 그녀를 거부하려 한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녀의 유혹에 다시금 굴복하고야 만다.

그는 순간 소파에 앉은 채 그녀의 품에 안겨버렸다. 그녀는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섰고, 그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그의 머리를 껴안았다. 온몸이 덜덜 떨렸다. 아마 그녀는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람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사악한 사랑인 것이다. 영원히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인가? 과멸의 조짐이 보인다.

(중략)

그는 굴복했다. 짙은 밤과도 같은 암흑이 그를 에워쌌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깊고 그윽한 그 함정에서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매장되었다.¹¹⁾

10) “五塊錢像一股回旋的流水，經過印家厚的手又流走了。全派了大用場，抵消了三等獎的恥辱。” 같은 책, 332쪽.

11) “他坐在椅子上被她抱住了。她簡直是從沙發上彈起來的。他一點兒防備也沒有，

周兆路는 華乃倩의 유혹에 굴복 당함으로서 그가 빠져 나오고자 했던 일상의 돌아가는 쳇바퀴를 결국 빠져 나오지 못했다. 周兆路에게 있어 華乃倩과의 외도는 일탈의 의미가 있었지만, 그 일탈은 어느새 또 다른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 일탈로 시도된 모험은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또 다른 일상으로 굳어져 버리고, 그에게는 가족과 情婦가 함께하는 일상생활이 끝없이 이어질 뿐이다. <煩惱人生>의 印家厚와 <白渦>의 周兆路는 모두 살아가는 삶의 번뇌에 대해 고민하고 작은 일탈과 모험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하지만 결국 삶이 주는 잠시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 일상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劉震雲이 1991년 완성한 <官人>에서는 권력, 그 끊임없는 순환 고리를 답습하는 인물인 老曲가 등장한다. <官人>은 1명의 국장과 7명의 부국장들 사이에 벌어지는 권력다툼과 음해들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다루어지고 있다. <官人>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하나같이 세속적인 권력의 다툼을 위해 필사적인 싸움을 벌인다. 이 소설에서 갈등은 새로운 부장의 취임과 함께 나타난다. 새로운 부장은 임원들을 물갈이 할 것이라는 의지표현을 하게 되고 이 소문은 임원들에게 전달된다. 이에 임원들은 자신의 자리를 보전코자 각기 계책을 짜내어 대응을 하게 된다. 이 대응의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고발장이 난무하고 직원들은 동요된다. 이에 상부에서는 조사관인 老曲를 내려 보낸다.

老曲는 출세해서 하늘 높은지 모르는 그런 소인매가 아니었다. 아무래도 부장과 오랫동안 함께 해서인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교양도 있고, 사람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굳이 신입 부장의 수준과 일의 처리를 뒤로 하더라도, 老曲는 수준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다.¹²⁾

眼前一陣發黑。她柔軟的身子抵著他的腦袋，渾身顫抖。她也許真的只愛他一個人。一種邪惡的讓人無法忍受的愛。他難道永遠無法擺脫她了嗎？他要毀了！（中略）他屈服了。像夜一樣的黑暗包圍了他，不論他怎樣掙紮，始終也逃不脫那幽深的陷阱。他被埋葬了” 劉恒，〈中國當代名作家自選集大系—劉恒〉，現代出版社，2005，353쪽.

老曲은 사람이 참 좋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참말로 온화하고 선량하게 대한다. 袁국장은 지난번의 그 조사가 老曲을 정말 고생하게 했으니, 앞으로 그와의 교류를 중시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袁국장은 차를 마시며 또 감격하여 다시 한 번 老曲을 바라보았다.¹³⁾

국장인 老袁의 눈에 비친 老曲은 매우 온화하며 점잖은 젊은 인재였다. 老曲을 묘사한 소설의 부분은 마치 《中庸》의 ‘담박하되 질림이 없으며, 간이하되 문채로우며, 따뜻하되 이치에 맞다(淡而不厭 簡而文 溫而理)’ 처럼, 전통적 도덕과 품위를 구현하고자 해 보인다. 이러한 묘사는 老曲을 권력에 연연해하는 다른 이들과는 달리 보이게끔 하고 있으며, 老袁 역시 이러한 老曲의 인물됨에 감격해 한다. 하지만 결과는 신임국장의 자리에 老曲이 취임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老曲은 소설 속 老袁이 묘사한 바와 같이 온화하며 권력을 탐하지 않는 인물형의 인간인가? 아니다. 마치 군자와 같았던 老曲 역시 우리 일상과 정치에서 권력이라는 불길을 향해 속절없이 달려 나아가는 부나방과 같은 사람일 따름이다.

양쪽의 갈등이 깊어지자, 일반 평직원들까지도 점차 두 파로 갈라지게 되었다. 老曲은 중간입장에 서서 직원들의 분열을 바라보고는 두통이 일었다. 어떤 때는 그들을 화해시켰다. 한편으로는 화해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별로 나누어져 있음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두 파가 있으면 만일 문제가 발생할 시 자기를 찾아와 해결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자신도 권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과별로 나뉘어 서로 자신만 생각하고 싸워야 창끝이 자신을 조준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老曲은 그 일 말고도 다른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그는 늘 자신의 상관을 찾아 다녀야 했다.¹⁴⁾

12) “原來老曲並不是那種小人得志、不知天高地厚的家夥；到底跟部長呆過許多年，雖然年紀輕，卻是個極有涵養、極平易近人的人。老袁認為，新任部長有沒有水平、處理問題慎重不慎重另說，這個秘書卻還真有些水平。” 劉震雲，〈官人〉，《濫故一九四二》，人民文學出版社，2009. 341쪽.

13) “這個老曲爲人真正不錯，鎮靜，與人爲善，上次去調查還真虧是他去，以後要注意與他交朋友。一邊喝茶，一邊又感激地看他一眼。” 같은 책, 351쪽.

앞서 언급한 印家厚, 周兆路, 老曲는 비록 그 지위와 처한 각기의 상황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현실, 또는 권력의 일부분이 되어 세속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도시 지식인들의 세속화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타락하고 현실에 타협한 지식인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이 등장인물들은 각기의 일상성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서양의 형이상학적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일상성의 중요함을 설파한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주장과도 일치하고 있는데, 그는 철학은 일상¹⁵⁾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20년대 후반, 앙리 르페브르는 사회의 문제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험적인 인간형의 정립을 통해 끊임없는 저항을 촉구했다. 이후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은 헤겔을 접하면서 더욱 깊어지게 되는데, 그는 헤겔을 통해 소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이미 사회 저변의 문제들에 대하여 실천적, 모험적인 삶을 추구해 온 르페브르는 자신의 희망과 역행되는 의식적 상태로서 불행한 의식이나 소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이후 1930년대에 들어서 마르크스를 접한 르페브르는 이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그의 인식을 명확히 하게 된다.¹⁶⁾ 그는 관찰을 통해 일상생활의 이면에도 일상생활을 극복하는 자발적인 순간들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터져 나오는 축제나 혁명 같은 것으로, 르페브르는 이러한 재생산이야말로 자본주의적 일상성을 폭로하고 탈 소외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축복, 혁명과 같은 일탈들은

14) “雙方矛盾越來越深，甚至在群眾中也逐漸形成了兩派。老曲坐在中間，看下邊有分裂的危險，也很頭疼。有時也與他們調解。當然一方面調解，另外一方面他也暗中同意下邊有兩派。下邊有兩派，遇事才會來找他評判，他才不會被架空；兩派只顧自己相互鬥，才不會把矛頭對准他。何況老曲也沒有把這些事情放在心上，他還有另外許多事情要做。比如，他得經常到老領導那裏去。” 같은 책, 360쪽.

15) 르페브르에 따르면 일상생활은 추상적인 신화에 의해 소외된 삶의 전체이며, 하찮지만 견고하고, 당연시되면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의문시하지 않고 무기한적 이며 특별하지 않은 삶이다.

16) 이영빈,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생활비판론 연구>, 《서양사론》 54號, 1997, 69쪽.

일상생활이 있기에 존재한 것이다. 그동안 관계를 재생산하는 수동적인 장으로만 치부되어왔던 일상생활에서 르페브르는 사회변화의 능동적 기능을 찾아낸 것이다. 그는 일상을 “일상은 추락의 방향도 아니고, 봉쇄나 장애물도 아니며, 다만 하나의 場인 동시에 교대, 하나의 단계이며 도약대, 여러 순간들로 이루어진 한 순간이고,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하는 변증법적 상호작용이다.”¹⁷⁾고 정의한다. 또한 그는 철학자들이 비록 여러 장애를 뛰어올라 자신의 진리 안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실재가 없는 진리인 철학적 소외 또는 진리 없는 실재인 일상적 소외가 존재할 뿐이라 주장한다. 이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인 일상생활, 그 자체에 대한 고찰을 배제한 철학적 형이상학적인 주장들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일상성에 대한 긍정은 그 속에 어떤 의의를 내포하고 있을까?

III. 반복되는 일상 속 의미 찾기

일상생활을 끊임없이 영위하며 특별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인물은 劉震雲의 소설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의 중편소설 <一地鷄毛>와 <單位>에 등장하는 小林이 바로 그러하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小林은 <煩惱人生>의 印家厚처럼 온갖 번뇌에 시달린다. <單位>는 小林이라는 인물을 통해 한 개인이 어떻게 조직에 적응해 나가고, 또 욕망으로 인해 사회의 기성인으로 거듭나는지 묘사하고 있다. <單位>의 小林은 사무실에서 가장 어린 사원이다. 막 사회에 진입한 小林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력투구를 하지 않았다.

小林은 4년 동안 직장에서 배운 것들이 학교에서 배운 4년간의 지식보다 많다고 여겼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는 학생 티가 물씬 나서,

17)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세계일보, 1990, 62쪽.

애들처럼 어떤 일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예를 들면 늘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했고, 출근할 때도 슬리퍼를 신고 왔으며, 사무실 청소도 먼저 하는 법이 없었다.¹⁸⁾

무엇이든 건성 건성이던 小林은 입사한 지 3년이 지나 주변을 돌아보고 서야 깨달았다.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시기 각기 다른 직장에 입사했던 동기들은 모두 입당을 하고 또 승진하여 개인주택을 배정받았는데 小林은 뒤쳐진 것이다. 小林은 후회한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에 대한 반성에 의한 것은 아니다. 바로 외부의 고달픔이 그를 후회로 인도한 것이다. 小林은 승진에 뒤처져 친구들과의 농담조차 껄끄러운 일이 되어 버렸으며, 직급이 낮아 공동주택에 살며 여러 이웃들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한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는 비록 아내와 맞벌이를 하는 小林이라도 감당해 내기 힘들 정도이다. 어느덧 小林은 직장에서 어떻게 자신이 처신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이러한 외부의 번뇌들은 小林을 조직에 적합한 인물로 개조시키는 결정적 작용을 한다. 사회 초년생인 小林은 외부의 번뇌들로 개조되어 劉震雲이 3년 후인 1991년에 발표한 <一地鷄毛>에서 생활인 小林으로 거듭나게 됨을 볼 수 있다. <一地鷄毛>의 小林은 개인집을 배정받고 아내와 딸, 그리고 가정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小林을 괴롭히는 번뇌들은 여전히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 조금 더 싼 가격에 좋은 두부를 사려 했지만 그만 두부는 상해 버렸고, 갑자기 초등학교 은사님이 방문해 아내의 눈치를 봐야 했으며, 어렵게 입학한 딸 유치원 선생님의 설날 선물로 골머리를 앓는 小林은 <單位>의 小林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一地鷄毛>의 小林은 노숙한 기성 사회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활의 구질구질함과 자질구레한 각종 고

18) “小林覺得，四年單位，比四年大學學東西要多。剛開始來到單位，小林學生氣不輕，跟個孩子似的，對什麼都不在乎。譬如說，常常遲到早退，上班穿個拖鞋，不主動打掃辦公室的衛生。” 劉震雲，〈單位〉，《溫故一九四二》，人民文學出版社，2009. 154쪽.

민들 속에서 小林은 이제는 제법 능숙하고 능란하게 대처해 나간다. 대학 친구였던 小李白이 오리를 대신 팔아 달라 부탁하자 小林은 처음에는 ‘창녀가 된 것처럼’¹⁹⁾ 부끄러워했지만 나중에는 능숙해서 그 일을 즐기게 된다. 심지어 고향의 문건 처리를 부탁하러 온 절름발이 영감에게는 너물의 의미가 농후한 작은 전자레인지로 선물 받기까지 한다.

아내는 기뻐하며 말했다.

“전자레인은 쓰임이 다양해. 감자를 구울 수도 있고 케이크랑 떡, 닭, 오리도 구울 수 있단니까.”

그도 감자를 먹으며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배웠다. 그것은 생활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저 생활 속에 들어가려고만 하면 가능한 것이었다.²⁰⁾

처음 小林은 전자레인을 부담스러워 하며 거절하려 하지만 곧 아내가 전자레인으로 감자를 구워오자 마음을 바꾼다. 심지어 어제 저녁에 아내가 축구를 보지 못하게 하여 마음 상했던 일까지 모두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小林은 기분 좋게 잠든 어느 날 밤 꿈을 꾸다.

그날 밤 그는 마치 죽은 듯 잠을 잤다.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그는 잠자리 위에 닭털을 한 몽텅이 덮고, 밑에는 사람들이 떨어뜨린 껍질을 깔 채 자고 있었다. 부드럽고 안락한 것이, 일 년이 하루 같이 느껴졌다.²¹⁾

19) “小林感到就好像當娼妓” 劉震雲, <一地雞毛>, 《溫故一九四二》, 人民文學出版社, 2009. 300쪽.

20) “小林老婆高興地說, 微波爐用處多, 除了烤白薯, 還可以烤蛋糕, 烤饅頭, 烤雞烤鴨. 小林吃著白薯也很高興, 這時也得到一個啟示, 看來改變生活也不是沒有可能, 只要加入其中就行了.” 같은 책, 307쪽.

21) “這天夜裏睡得很死, 半夜做了一個夢, 夢見自己睡覺, 上邊蓋著一堆雞毛, 下邊鋪著許多人掉下的皮屑, 柔軟舒服, 度年如日.” 같은 책, 309쪽.

나름의 청렴함과 도덕적인 면모를 유지 하려 애썼던 小林은 그를 둘러싼 각종 자질구래한 생활의 고민 앞에서 고민거리 해결을 위해 좀 더 세속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의 세속화는 <單位>에서 함께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에 비해 처지는 자신의 형편을 부끄러워하며 시작된다. 또한 아이에게 양질의 음식을 먹이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우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때문에 그는 젊은 시절의 이상과 신념을 포기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포기들이 쌓이고 쌓여 小林은 점차 일상화 되고 사회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재미있는 점은 바로 소설 속 小林의 어투변화이다. 小林의 일상생활에 대한 고민과 푸념들은 소설이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긍정적인 어투로, 심지어 자신만만한 어조로 바뀌어 감을 볼 수 있다. <一地鷄毛>의 도입부분에서 두부가 상한 사건이 끝나고 또 다시 小林의 자잘한 고민들이 그를 괴롭힐 때 그는 갈팡질팡 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소설의 후반부에서 절음발이 수도 검침원이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모습은 노련한 기성세대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이 일은 처리하기 쉽다면 쉬운 일이다. 내일 그가 평에게 한 마디 말만 한다면, 그녀가 립스틱을 바르는 정도의 수고로 그 문건을 그녀의 손안에 서 떠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이 일은 보아하니 도와주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小林은 이미 예전의 그 小林이 아니었다. 그는 노련해 졌다. 만약 예전 같았다면 도와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바로 흔쾌히 도와준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애 같은 것이다. 도와 줄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선 도와 줄 수 없다고 말해야 하며, 쉽게 처리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선 쉽지 않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바로 노련한 것이다.²²⁾

22) “這事情說好辦就好辦，明天他給女小彭說一句話，女小彭抹口紅的工夫，這批件就從她手裏出去了。(中略) 這個忙看樣子得幫，但小林已不是過去的小林，小林成熟了。如果放在過去，只要能幫忙，他會立即滿口答應，但那是幼稚；能幫忙先說不能幫忙，好辦先說不好辦，這才是成熟。” 같은 책, 305쪽.

小林을 개조하게 만든 ‘외부의 작용’은 다름 아닌 ‘돈, 집, 식사, 잠자는 것, 대, 소변을 보는 모든 것’²³⁾ 즉, 총체적인 일상생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그가 젊은 시절 다짐했던 나름의 이상적, 또는 철학적 생활에 대한 포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철학에 배치된 존재로 사라져야만 하는 존재일 따름인 것인가? 분명 철학과 일상성의 사이에는 결코 좁혀지지 않는 가시받길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관조적이며 사변적인 철학과는 다르게 일상성은 자연의 순수성의 상태에 더 가깝다 할 수 있다. 일상적인 사람은 비록 수천 개의 자질구레한 강제성에 사로잡혀 있지만 기쁨과 열정의 감정을 표출하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생과 사의 관계나 생활의 과정에 있어 감정적 풍요가 있다. 이러한 감정적 풍요는 철학자들에게 정교한 이론적 체계를 벗어난 자연적이며 신비적인 경탄을 자아내게끔 하는 그 무엇을 내재하고 있다. 때문에 일상성은 非哲學이지만 동시에 철학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상성에 대해 그 저속함과 용속함에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은 그저 화려한 언변으로 무장한 알맹이 없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태어나고 죽으며, 그 안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이도 있다. 인간의 즐거움과 고통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편 일상성은 때로 사람을 비참하게하기도 한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일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속해있다. 영원히 끝이 나지 않을 것만 같아 보이는 업무,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돈과 상품에 대한 욕망의 교류, 권력을 향한 욕구의 반복 등등. 이러한 일상의 비참함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일상적인 것에 대한 갈구로 이끌고 있다. 그 갈구는 거대한 혁명이나 거창한 축제로 발현되기도 하며 때로는 새로운 모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비일상적인 것은 사람들을 매우 흥분시키며 본인이 결국 일상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잊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일상적인 혁명이나 모험, 축제들은 결국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의 성공과 실패 여부와는

23) “錢、房子、吃飯、睡覺、撒尿拉屎” 같은 책, 157쪽.

관계없이 비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 거대한 일상성은 다시금 비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버린다. 일상성은 이렇듯 영원한 삶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완강한 지속성은 견고하고 집요해서, 이것에서 벗어나고자 모험을 하여도 모험은 결국 모험으로 끝나버린다. 모험이나 혁명이 끝나고 나면 그 비일상적인 것들은 다시 일상의 딱딱한 틀로 박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일상을 욕망하는 것은 小林을 포함한 모든 시기의 지식인들에게도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일상을 욕망하는 것은 무엇을 욕망한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혼자인 존재로는 살아갈 수 없는, '개체'로서 인간의 사회적 욕구 만족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먹여 살려야 할 처와 자식들은 小林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와 지위를 만족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일상성을 인정하고 영위해 나가야만 한다. 인간은 항상 '욕망하는 존재'라는 프로이트(Freud)적 측면으로 보자면 인간은 지속적으로 욕망하고 또 좌절하는 순환 고리 속에 속해있다. 때문에 小林은 비록 자기 합리화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일상과, 또 그에 파생되어지는 욕망들을 긍정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개조시키는 인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작가가 일찍이 언급한 '한 줄기 빛'이라는 긍정적인 사유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小林의 지리멸렬한 삶의 끊임없는 반복은 알베르 카뮈(Albert Camus) 시지프스 신화의 시지프스를 떠올리게 한다. 시지프스는 제우스에게 미움을 받아 하데스에 의해 이끌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시지프스가 받는 형벌은 큰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것이었는데 산꼭대기까지 밀어올리고 나면 바위는 다시 땅으로 떨어져버려 시지프스는 다시 바위를 산꼭대기로 올려놓아야만 했다. <一地鷄毛>의 小林과 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시지프스와 같이 똑같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으며, 현대인들의 운명 역시 신화 속 시지프스처럼 무의미하며 무력하게

보인다. 힘겹게 올린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모습을 본 시지프스는 끊임없이 자신의 형벌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때 시지프스는 바위를 계속 산으로 들어 올릴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 하고 그만 둘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시지프스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下山을 감행하여 다시 힘겹게 돌을 들어 올리는 결정을 한다. 신이 내린 형벌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신에게 반항하고 부조리에 대항하는, 즉 실존하는 인간임을 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에서 알베르 카뮈는 시지프스가 바위를 들고 올라가는 과정이 아닌, 다시 평원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주목해야 함을 주장한다. 찰나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下山의 과정은 고통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기쁨으로 내려오는 날도 있는 것이다. 기쁨으로 내려가는 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찰나의 순간에 느껴지는 삶에 대한 부조리인 것이다. 시지프스가 돌을 내려놓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삶의 부조리를 자각하는 순간은 바로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자각하고, 타인에 대한 의식을 하는 순간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그것은 小林이 시지프스가 매일 돌을 들어 올리듯 한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남을 생각하는 惻隱之心과 타인을 배려하는 人之常情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서도 볼 수 있다. <單位>에서 모두가 퇴직을 앞두고 회사를 방문한 老喬를 피할 때, 小林은 그녀의 처지에 동정심을 느끼고 따뜻하게 먼저 인사를 나눴다. <一地鷄毛>에서 아내가 수돗물을 훔칠 때 수치심을 느끼고 훔치는 것을 그만두기도 했다. 아내와 한바탕 가정부 욕을 신나게 한 뒤에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수도 검침원인 절름발이 영감에게 전자레인지로 받는 장면에서도 그는 거들 공직자의 자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비록 잠깐의 순간이지만,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각성의 찰나가 있기에 비록 지리멸렬한 매일이 반복 된다 하더라도 인간은 회열의 下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카뮈의 주장에 의하면 시지프스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이 부조리에 대한 각성의 찰나이다. 그러나 이 찰나의

통찰력이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를 완벽한 승리자로 만든다. 이 찰나의 통찰력은 힘겹게 돌을 올리는 지리멸렬한 과정 없이는 결코 생겨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반복되는 과정이 있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소설 속의 小林 역시 숙명과도 같은 바위를 들어 올리려 매일을 반복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지식인으로서의 찰나의 각성과 人之常情의 마음들이 자신만의 삶을 온전히 살게끔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劉震雲이 앞서 언급한 '한 줄기의 빛' 역시 비록 일상을 살아가지만 찰나의 빛으로 완전해 지는 개인의 삶이라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IV. 나오는 글

이상으로 본고는 池莉, 劉恒, 劉震雲의 신사실주의 소설 작품을 통해 생활과 권력의 용속함을 살펴보았다. 池莉는 도시 노동자의 하루 일과를 마치 카메라가 따라 다니듯 세밀하게 묘사해 냈으며, 그 속에서 생활, 그 자체의 용속함과 지리멸렬함을 냉정하게 그려냈다. 그녀의 작품 속 주인공은 꿈을 이야기 하며 꿈을 그리지만 실상은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해야 하는 소시민일 뿐이다. 劉恒은 <白渦>에서 불륜관계를 맺는 남성을 등장시켜 절묘한 감정묘사를 그려냈다. 주인공인 남성은 현실에서 도피하려 하지만 결국은 다시금 情婦의 유혹에 굴복하고 만다. 劉震雲의 <官人>에서는 경전에 등장하는 군자 같은 인물인 老曲을 등장 시켜 권력투쟁을 일삼는 다른 간부들과 대비시켰지만, 결국 老曲 역시 권력을 향해 뛰어드는 부나방과 같은 존재임을 그려냈다. 또한 <單位>, <一地鷄毛>의 주인공인 小林 역시 반복적이고 압박적인 현실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인물이다. 이 小林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 여러 논의가 있어왔다. 본고는 그러한 논의들을 정리하는 동시에, 小林의 생활을 통해 개인의 일상성이라는 가치에 대해 주목해 보고자 했다. 그동안 철학적인 논쟁들은 주로 형이상학적이거나 도덕적이었다. 하지만 서양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는 처음으로 이러한 철학적

주장에 반대의 깃발을 드리운 사람이었다. 그는 ‘일상성’, 즉 ‘일상생활’의 회복을 통해 개인의 삶의 회복이 가능하다 주장했다.²⁴⁾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小林 역시 자신의 일상생활을 충실히 하는 인간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單位>와 <一地鷄毛>의 小林은 젊은 시절 이상이 충만했던 자신을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끊임없이 개조하고 또 개조당하는 인물이다. 그는 비록 세속, 현실적으로 변해갔지만 자신을 괴롭히던 직장동료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동정심을 느끼기도 하고, 고향에서 찾아온 은사를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찰나에 불과 하지만 이러한 그의 각성은 시지프스가 부조리를 각성함과 같이 그를 괴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삶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 주기도 한다. 또한 그가 보여준 이러한 찰나의 각성들은 그를 비난하는 기존의 연구에 대해 일말의 반론의 여지를 남겨둠과 동시에 작가가 언급한 ‘한 줄기 빛’의 의미를 더욱 발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小林과 같이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해야 하는 숙명을 타고난 현대인들 역시 시지프스가 산에서 내려 올 때마다 자신의 비참한 숙명에 대해 생각하고 신이 내린 형벌을 묵묵히 수행하며 반항했던 것처럼 자신의 존재에 대해 견지하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록 주어진 숙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일상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24) 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의 회복이란 일상생활에 순응하는 개인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만의 스타일을 찾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일상성을 추구하고자 노력함을 말한다. 즉, 일상성의 회복이란, 불합리한 일상생활을 다시금 정상적인 ‘스타일’을 가진 일상생활로 환원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인 것이다. 르페브르는 일상생활을 비판했지만,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매몰되어 개개인, 또는 각 문화가 가졌던 ‘스타일’이 사라져 버린 일상생활을 경계하고 그것을 부정하여 ‘스타일’이 있는 진정한 일상성의 회복을 주장했다. 이 일상성의 회복으로, 인류는 다시금 축제나 혁명 같은 비일상을 꿈 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같은 책, 86쪽 참조.

<References>

- Albert Camus. Translation by Kim Young Eun. *Le Mythe de Sisyphe*. Press of Creation of Literature, 2003.
- Chen Si He. *China History of Today Literature Process*. Press of Pudan University, 1999.
- Chi Li. *Zhonghua Zhongpian Xiaoshuo Bainian Jinghua*. Press of Press of People's Literature, 2004.
- Emmanuel Levinas. Translation by Kang Youn Gan. *Time and the Other*. Press of Literature, 2001.
- Henri Lefebvre. Translation by Park Jeong Ja. *La Viequotidiennedans le Monde Moderne*. Press of The Segye Times, 1990.
- Hong Zi Cheng. *China History of Today Literature*. Press of Peking University, 1999.
- Kim Young Cheol. "Theory of Neorealism". *Collection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Treatises*, 1996.
- Lee Young Bin. "A Study on Henri Lefebvre's Theory, The Critique of Everyday Life". *The Western History Review*, Vol.54, 1997.
- Lee Young Gu. Park Min Ho. "A Study of Irony in Liu Zhen Yun's Neorealism Novel". *Society for Research in Foreign Literature*, 2010.
- Lee Young Gu. Park Min Ho. "The Era of Loss, Discovered the Subject Idealization, Secularization". *Researches in Sinology*, 2010.
- Lee Zhi Fei. *Shinian Yanyun Guoyan*. Press of Writer of the day Criticism, 1993.
- Liu Heng. *Series of Chinese Novel Of The Time-Liu Heng*. Press of Modern, 2005.

- Liu Zhen Yun. *Review the 1942*. Press of People's Literature, 2009.
- Liu Zhen Yun. Translation by Kim Young Cheol. *Chicken Feathers Everywhere*. Press of So Na Mu, 2004.
- Miao Yi. "Chuantong Renge Lixiangde Xiao Yin Yu Chongjian—Lun Liu Zhenyun Xiaoshuozhongde Dangdai Zhishifenzi Xingxiang". (*The Review of Henan Normal University*), 2007.
- Roland Barthes. Translation by Kim Woong Kwon. *Writing Degree Zero*. Press of Dong Moon Sun, 2007.
- Translation by Kim Young Cheol. *Novel Collection of Chinese Modern Neorealism Writer*. Press of Village of the Book, 2001.
- Yan Yun Gui. "Liu Zhenyun Xiaoshuozhong Zhishifenzide Shengcun Zhuangtai Sikao". *Novel Criticism*, 2009.
- Zhang Ye Song. "Xinxieshi: Huidao Wenxuezishen", *Shanghai Literature*, Vol.12, 1993.
- Zhang Ying. *Capacity of Literature—Interview Famous Writer of the Day*. Press of National. 2001.

<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Dailiness' with the aspects of characters in Neo-realism. Neo-realism that appeared in the late 1980's has different context from either realistic or modernistic novels. Neo-realism deals with dailiness and depicts objective facts. Also, the contents are mostly about trivial things happening in everyday life. Advanced researchers generally deemed that Neo-realism represented incoherence in everyday life or intellects' helpless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Neo-realism by approaching it with a brand new perspective of

'Affirming Dailiness'. Though 'Sorim' was seen as a helpless intellect previously, this researcher regards 'Sorim' as a person representing those who affirm dailiness. Based on a series of research, this study has drawn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dailiness is even firmer than our imagination. Even though Sorim does sometimes justify his own behavior, he is, in fact, a type of person who affirms his own daily needs and constantly reflects on himself for the better. Second, Sorim's life is painful and agonized just like 'Sisyphus' in 'the Myth of Sisyphus', he also has realized the teachings of going down the mountain like Sisyphus. That is why he can also go down the mountain everyday with joy. Also, this study analyzes not only liuzhenyun but Neo-realism briefly. However, the degree of dailiness in each of the works could not be examined deeply enough. To complement this limitation, more profound research will have to be conducted afterwards.

Key Words : 신사실주의(Neo-realism), 一地鷄毛(Chicken Feathers Everywhere), 單位(The Office), 小林(Xiao Lin), 일상성(Dailiness), 부조리(Irrationality).

